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UBF 대표 김모세 목사입니다. UBF 60주년 기념 수양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수양회 참석하신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수양회를 통해 지난 60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의 순수한 복음 신앙을 배우며 앞으로의 또 다른 60년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2021년 선교사 수양회 개최 말씀

나의 간절한 소망

말씀 / 빌립보서 1:1-30

요절 / 빌립보서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기도: 기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요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UBF 60주년 기념 수양회를 하게 하시고 특별히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의 복음 신앙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개최의 말씀으로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주시고, 저희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A.D. 62 년 경에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썼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의 서신은 슬픔과 회의 등으로 가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을 살펴보면 기쁨과 감사, 희망이 충만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서신에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잘 나타나 있어서 그의 순수한 복음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관해 말해줍니다. 살펴보면 바로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I. 바울의 감사와 기도(1-8)

빌립보서는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행 17장). 빌립보서 4장에 유오디아, 순두개, 클레멘트 등 많은 동역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덧 빌립보 교회가 크게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었고, 바울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할 때는 여러모로 동역하면서 이 은혜에 참여해주었습니다(7). 바울은 지금 비록 차가운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양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 삼을 정도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 이런 아주 뜨거운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해주었는데 그들이 사랑에서뿐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기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양들의 동역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축복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바울의 복음 정신과 간절한 소망(9-30)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목자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아 그러면 이제 복음 역사가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이들의 근심을 알고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기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복음 역사는 진전을 이루었다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첫째로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 시위대가 있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군병들이 간수가 되어 순번을 정해 놓고 바울을 지키러 오는 겁니다. 이때 죄수와 간수를 사슬로 묶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이때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김 병장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군병들은 꿈쩍없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순번이 또 돌아오면 지난번에 이어 계속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시위대 안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로마 황제의 궁중에까지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밖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주의 형제들이 바울은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아, 바울 목자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전에 없는 열심히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 바울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서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래? 때는 이때야! 우리가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자구” 하면서 바울 보란 듯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바울을 괴롭히고자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기분이 나빴겠지요. “아니, 내가 하루 빨리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를 해주어야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도하다니...’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겠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오해와 아픔을 뛰어넘어 복음 전파에 관한 것이라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바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든 ‘여하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라는 큰길을 가는데 바울에게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되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복음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복음 정신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 여러 모양으로 선교지에 나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봉제공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셨고, 어떤 분은 검사라는 직업을 뒤로 하고 선교현장에 나가서 신문 배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나라 언어 한마디로 못하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무시무시한 동토의 땅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서 큰 개척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복음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UBF 역사는 바로 이런 ‘복음 정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이룬 믿음의 결단이요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자나 깨나 복음을 생각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함께 기뻐해 온 그런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와 선교사로 불러 복음 정신을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기에는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교회의 박해자요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서야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

던 그리스도시오 영원히 경배받으실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때부터 주저 없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절을 자세히 보면 ‘이제도 전과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이미 과거부터 살든지 죽든지 이 소망을 이루려는 간절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서신에서 자신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 동족들에게 사십에 한 번 감한 때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등 수많은 위험에 처했습니다(고후 11:23-27). 자, 이 일을 겪는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담대히 하여 계속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전도자 바울의 결단이요 인생 목표였습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그는 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질 수 있었고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로마서 14: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원동력이요 전부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젊은 날 청춘을 드려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 한분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UBF 역사는 과연 이러한 결단과 소망의 증거였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서 현지에서의 물질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선교동역자들 간의 갈등의 어려움 등 허다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어느덧 그 푸르던 청춘 선교사가 백발의 선교사 되었습니다. 그

리고 선교지에서 병을 얻거나, 혹은 사고로 젊은 나이에 가족을 뒤로 하고 순직하신 선교사님들도 37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변치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자신을 드러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사 수양회에는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던 이 소망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실하는 수양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망,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이 소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과거 인생의 허무로 인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죽으면 다 끝인데...’ 하는 생각이 엄습해 오면 밥을 먹던 숟가락은 조용히 내려놓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저를 보고 “애, 갑자기 왜 그러니?”하며 놀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저에게 제대로 된 인생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창세기에 이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허무의 세력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내 안에는 생명의 은혜가 충만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내 안에 허무의 세력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은 저의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때 저는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 나타내는 것을 저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허무로 인해 방황하던 저를 붙잡고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목자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요 영광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하게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양회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순수한 신앙 열정을 배우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신앙과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존귀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수양회에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에게 빌립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